

### 광주 남구, '비상용생리대자판기' 확대 설치



지난해 공공시설 4곳 설치...정책사업에 '호우' 이달 초순 다목적 체육관 등 4곳에 추가 보급

광주 남구는 관내 여성의 건강 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한 생활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추가 설치에 나선다.

3월 31일 남구에 따르면 진월동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푸른길도서관 등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 4곳의 여자 화장실에 늦어도 4월 초순까지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지난해 10월 남구청 별관동 종합민원실과 남구문예회관, 청소년도서관,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에 처음으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이후로 5개월여 만에 확대 보급에 나선 것으로, 여성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는 관내 거주하는 여성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을 방문해 해당 물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는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신안군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신안군 맞춤형형 지역특화사업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홍매화와 톨립의 향기가 그윽하게 피어나는 신안군 임자면에 아름다운 주민들의 향기로 지역사회에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신안군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

간 위원장 정창일)는 지난 3월 31일 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임자면여성단체협의회, 임자만났네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내부 청소 및 방역, 의류 세탁, 외부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수년간 각종 생활쓰레기가 마당에 적치되어 봉사인력으로 치우기가 어려워 중장비를 동원하여 압록박스 2대 차량분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드렸다

당사자는 "몸이 불편하여 청소를 할 엄두를 못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지니 내 마음이 통쾌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창일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힘들었을 대상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좀더 우리사회가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며, "따스한 봄 햇살 가득한 오늘처럼 항상 대상자 마음에도 따스함이 자리잡아 남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광양시,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서만 가능하던 치매선별검사 보건지소·진료소까지 확대

광양시는 치매안심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치매선별검사를 올해부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당해연도 만 75세에 진입한 어르신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한 사람이다.

치매검사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들이 인지선별검사(CIST) 방법으로 시행한다.

치매선별검사가 가능한 보건기관은 △광양 치매안심센터 △진상면 백학동 기억센터 △태인동 도시보건지소 △면 단위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이다.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은 점수 결과에 따라 전문병원에서 2단계 정밀검진을 받는데 신경인지 기능검사, 치매척도검사 등 진단검사와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감별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치매진단을 받게 된다.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건소가 병원에 지급함으로써 대상자의 비용부담을 덜도록 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광주광역시치매센터,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행사'

광주광역시치매센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7일 오후 2시까지 '2021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에(愛)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워크온'을 다운로드 해 '광주광역시치매센터' 검색 후 도전 할 수 있다.또 오프라인 참여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사전접수(22일까지)하면 된다.

오프라인 참가자들에게 만보기를 포함한 방역키트가 제공된다.

최윤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